길 떠난 원숭이, 무위진인이 될 수 있을까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 원숭이 왕, 출가를 결행하다(2)

그림 · 최주현

우리 원숭이 왕은 무상을 느끼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출가를 결행합니다. 우리가 늘 구석으로 밀어 놓고 마주보기 싫어하는 죽음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죠. 바로 이 정신! 근본문제와 정면으로 승부를 하려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서유기에서는 이를 '보리심'이며 부처의 씨앗이라고 찬양하고 있지요. 제가 돌원숭이 왕이 네 대문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을 보았다고 슬며시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출가와 원숭이 왕의 출가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주문입니다.

덧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떨치고, 근본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신, 바로 이것이 출가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싯다르타 왕자는 그 출가를 통해 부처가 되셨지요. 우리 원숭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 귀띔해 드리지만 역시 부처가 됩니다. 사상 최초의 원숭이 출신 부처?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따져 말하자면 그렇지도 않네요. 우리가 사람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참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람 비슷한 원숭이와 다름없겠죠?

서유기에는 염라대왕의 관할을 벗어나는 존재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인(仙人)과 부처와 신성(神聖)이라고. 그 가운데서 선인과 부처는 잘 알겠지만 신성은 무엇인지가 좀 불분명하죠? 아마 위대한 인격을 이루어 불후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자, 예수 같은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공자와 예수 같은 분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면 죽었지요. 부처님 역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을 돌아가셨다고 하지는 않지요?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격을 이룬 분들은 이미 우리들과는 존재의 의미가 다를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 들었기에, 또한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을 우리 존재와 똑같은 죽음을 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고통의 윤회를 계속한다던가, 소멸된다는가 하는 식의 변화가 아닌 다른 변화가 진행된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고 하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 죽음이 죽음 아님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염라대왕의 관할을 벗어난 세 종류의 존재, 그 가운데서도 서유기에 주로 나오는 것은 부처와 선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지요. 불교는 깨달음에 의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몸이란 것은 형태 있는 것이요, 무상한 것이니까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대로 산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엘리어트가 지은 '황무지'라는 시의 머리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폴론 신 신전의 무녀가 아폴론 신의 사랑을 받았지요. 아폴론 신은 그 무녀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때 그 무녀는 생각 없이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죽지는 않는데 끝없이 늙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쪼그랑 바가지로 늙어서 몸까지도 쪼그라 붙어 조그맣게 되어 버렸지요. 얼마를 살았는지도 모를 쪼그랑 바가지 모습이 희한해서 결국 조롱 속에 갇혀 서커스단의 구경거리로 끌려 다니게 됩니다. 서커스 구경 온 아이들이 놀리며 묻습니다.

"무녀야, 넌 뭘 원하니?" 이에 무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난 죽고 싶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죽지 않게 해 달라던 소원과는 정 반대의 소원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죠? 늙어 볼품없이 되고 고생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라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데에는 당연히 여러 조건이 덧붙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겹기 짝이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장 멋있는 대표 모습(?)은 가지더라도 여러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여러 재미있는 짓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군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조건을 붙여야 영원히 살더라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런 우리의 가장 소박한 소망,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이 모여져 이루어진 것이 신선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교(道敎)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지요. 우화등선(羽化登仙)은 존재를 뛰어넘어 선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도교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도교에서는 연단술 등을 통해 이런 경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교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가기로 하죠.

우선 도교는 도가(道家)사상과는 조금 구별해야 합니다. 도가(道家)라고 하면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흐름을 말하지요. 그러한 사상을 한편으로 이어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선사상과 민속신앙 등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 도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을 모시는 신앙도 그 가운데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 **부처 · 신선 · 신성, 죽음 벗어난 존재**
> **미후왕의 출가도 무상함에서 비롯**
> **도교 · 불교적 영향 복합적으로 담겨**
>
> **이루지 못할지 모르는 험난한 길**
> **그 길을 가는 존재 자체로 '감동'**

재앙을 없애며, 궁극적으로는 신선이 되어 늙지 않고 영원히 살려는 목표 아래 주술, 부적술, 연단술 등의 다양한 종교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도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큰 줄기를 말하라면 내단(內丹), 외단(外丹)의 술이 있고, 곁가지로는 방중(房中)의 술도 도교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내단이란 호흡수련 등을 통해 몸속에 금단(金丹)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단학(丹學) 바람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내단의 방법입니다. 몸속에 단약(丹藥)을 만들어 우화등선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외단은 여러 신기한 약재(수은이나 납 같은 금속재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 주)를 제련하여 금단을 만들어 먹어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좋은 약도 있겠지만 위험한 금속재도 섞어서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중국 역대 황제의 뼈를 조사해보면 많은 경우 납중독 수은중독의 자취가 있대요. 아마도 오래 살려고 도사들이 바치는 금단 많이 먹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 방중은 남녀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망하지만 남녀 간의 성행위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이면서도 음양의 화합을 이루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우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일정한 법식에 따라 하면 무병장수,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방중의 술의 의미입니다.

원숭이 왕이 죽음을 넘어서겠다는 결심으로 떠나는 것은 일단 도교적인 길을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겠다는 생각은 바로 신선을 추구하는 것과 가장 쉽게 연결되니까요. 서유기에서는 술법을 배워 그 신통력으로 염라대왕의 손길을 뿌리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도 도교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불교적인 깨달음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구하지만 역시 시작은 소박한 인간의 욕망과 가장 잘 연결되는 도교적인 방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숭이왕은 모든 신하와 백성 원숭이들과 크게 한판 환송의 잔치를 벌이고 망망대해에 뗏목을 띄웁니다. 일엽편주(一葉片舟)도 안 되는 일엽뗏목입니다. 망망대해에 뗏목,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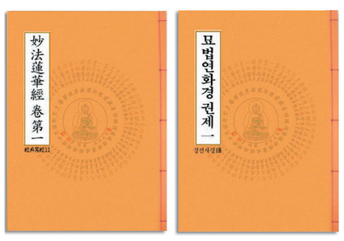
이룰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큰 뜻을 품고 떠나는 그 길. 일상의 삶에 편안히 머무는 쪽을 택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보장도 없는 험한 길을 택한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무수히, 아니 성공한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무수한 용기 있는 분들의 덕으로 우리는 진리의 한 조각이나마 맛보면서, 덧없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실 웃으면서 헤매고는 있지만 이 시간도 조금은 우리 삶을 돌아보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 한수가 갑자기 생각나 소개드리면서 오늘은 마치지요. 이섭(李涉)이란 중국 당(唐)대 시인의 '등산(登山)'이란 시입니다.

終日昏昏醉夢間
종일토록 몽롱하게 취한 꿈결 사이에
忽聞春盡强登山
문득 봄이 지나간다는 소릴 듣고 산에 올랐지.
因過竹院逢僧話
대나무 우거진 암자 지나다 스님 이야기를 듣네.
偶得浮生半日閑
뜬구름 같은 삶에 모처럼 얻은 반나절의 귀한 시간.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